

장백산천지

제31호

2007년 5월 4일

금요일

《반부패유히》를 평론함

중공은 《반부패유히》를 끊임없이 놓고있다. 근 몇년동안 전국 각 도시의 주요 관원들은 도시의 형상을 수립하기 위해 고층건물을 세우고 광장을 만들었으며 도로를 넓혔다. 그러나 관원과 상인들은 배후에서 결탁하여 권리금전거래를 했는바 방산토지상인은 큰돈을 벌었고 주요 관원들은 벼락부자가 되었다.이리하여 도시건설은 각급기률검사부문에서 반부패의 초점이 되었다. 증권시장의 증권내선거래와 암막상자 조작이 성행할 때 기률검사부문에서는 배후에서 안건을 조작한 관원들을 붙잡았다. 교통건설 특히는 고속도로건설에 전력할 때 기률검사부문에서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교통청장, 교통국장들을 처벌했다.국가은행에 빚진 장부가 급증할 때 기률검사부문에서는 규장제도를 위반하고 대부금을 내준 은행관원들을 붙잡았다. 이렇게 어디에 부패가 나타나면 기률검사부문에서는 어디에 가서 부패분자를 채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멍막기의 《반부패유히》는 근본적으로

반부패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부패현상은 날따라 점점 심해졌고 보편화되었다.

진정으로 철저히 반부패를 하자면 반드시 정치제도를 개변해야 하며 감독메커니즘(机制)이 있어야 한다.지금 중공은 이 두방면의 조건을 다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중공의 일당독재제도는 실제로 중공을 사회를 주재하는 유일한 역량으로 되게 했고 각종권리기구는 모두 중공이 임명한 관원들이 좌우지하며 그들은 감독을 받지 않는다. 또한 중공의 통제 하에 중국은 신문자유가 없으며 당에 대한 감독을 용허하지 않는다. 관원들을 단속하는 주문(紧箍咒)이 없으니 어찌 탐오부패가 범람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중국의 부패문제를 해결하자면 단순히 기률검사부문에서 구멍막기 쥐잡이 유희에만 열중해서는 않된다. 제도를 철저히 개변하고 감독메커니즘을 건전히 세움으로써 중공관리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국파룬궁학원들이 박희래의 폭행을 항의



2007년 4월 10일 중공총리 온가보가 한국을 방문하러 왔을 때 수행관원 중에 파룬궁을 박해한 흥수 박희래가 들어 있었다. 한국 파룬궁학원 들은 박희래가 투숙한 호텔앞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박희래를 처벌할것을 항의했다.

대만에서 2천만 퇴당을 성원하는 대시위 거행

2007년 4월 15일, 근 4,000명 대만민중들이 2천만퇴당을 성원하는 시위를 거행했다.



<파룬궁박해추궁조사국제조직>에서 중공에대한 대심판전 죄증조사 끝냄

2천만중공인의 퇴당을 성원하는 뉴욕집회에서 <파룬궁박해추궁조사국제조직>은 이미 중공에 대한 대심판전 죄증조사를 끝냈다>고 선포했다.1999년 7월이후 강택민,라건,주영강,류기등을 위수로 한 중공은 모든 국가기구를 리용하여 국가공포주의 초급집단 범죄를 형성했고 파룬궁에 대한 군체소멸의 박해를 실시했다.

파룬궁박해추구조사국제조직에서는 <그렇게 큰 죄악의 혐의죄범은 대륙내에서 그들의 일체 범죄활동 안건을 일일이 기록해놓고 시시각각 우리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천라지망을 펼치여 대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정중히 선포했다.

토 | 막 | 소 | 식

▶ 금년 3월 21일, 하북성정부 방산공무원이며 대법제자인 란복생(56세)은 산서성 진중감옥에서 박해를 받고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그와 함께 랍치된 석가장 대법제자 정립굉은 악경들에게 맞아 생죽음 당했다.

▶ 절강성림안시법원에서 얼마전 비밀리에 법정을 열어 불법으로 대법제자 은금룡에게 5년반판결을 내렸다.한 변호사가 그의 가족의 위탁을 받고 작업에 착수하자 림안시 사법국에서 그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만약 계속 고집하면 로교소에 보낼 수 있다고 위협했다.

▶ 상해 보산구 공안분국 국보처 악경 위지온(녀)은 대법제자를 박해하여 악당이 준 장려금 1만원을 탔다. 2007년 1월 29일 오전에 갑자기 땅에 꼬꾸라져 두눈을 뜬채 급사했다.

죽음에서 살아난 리유가 랍치의 구실로 되다니

김신년(40 세)은 대련시복옥득선박공사유한공사생산경리였다. 2006 년 12 월 21 일, 새벽 3 시반경 김신년은 대련만에서 배를 수리하고 나서 차를 몰고 단위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따라 하늘엔 안개가 끼고 길은 얼음이 끼 미끄러웠다. 대고산의 90 도굽이에서 차가 고장나면서 깊이가 7-8 미터 되는 썩은 물구덩이에 미끄러져 떨어졌다. 차가 떨어지자마자 타이어 2 개가 터졌고 4,5 명 선박수리공은 물구덩이에 빠졌는데 2 명이 부상당했고 그중 1 명은 정신을 잃었다. 대법제자 김신년은 순간 사부님이 생각나서 노동자들과 함께 파룬따파는 좋다고 거듭 외쳤다. 이 외침소리와 함께 변형된 차문이 열리며 김신년은 밖으로 나와 노동자들을 하나 하나 구해냈다. 제일 마지막 사람을 구할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 김신년은 사부님에게 이 사람을 구해 달라고 소리높이 외치자 그 사람은 숨이 되돌아왔다. 교통경찰이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차문이 몹시 변형되었는데 어떻게 열었는가> 묻자 김신년은 <파룬따파가 좋다고 하니 차문이 절로 열렸다> 고 알려주었다. 교통경찰은 이 일로 하여 김신년을 고발하여 2007 년 3 월 30 일 오전 9 시에 개발구 황해로파출소로 붙잡아갔다. 그날 오후 다시 김신년을 개발구간수소로 이송하였다.

각급 지도자와 경찰들은 차사고에서 백성들이 전화위복이 된 소식을 들으면 응당 기뻐해야하고 백성을 구해준 대법에 대해 반드시 감격해야 한다. 하지만 중공의 통제하에 각급 지도자와 경찰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리유를 랍치의 구실로 삼는 이러한 괴상한 일들이 수두룩이 나타나고 있다.



폭로

연변박해소식

■ 금년 3 월 22 일, 오후 5 시 40 분경, 연길시하남가 파출소부근에서 화룡시 8 가자 법륜공학원 왕옥걸 과 그의 남편 악덕주는 연길시하남파출소 악경들 에게 랍치되었다. 지금 연길시국보대대에서 이 일을 직접 착수하고 있다. 대법제자들은 발정념하여 악당의 마굴에서 이미 벗어났다.

■ 2007 년 4 월 20 일, 오후 5 시경 안도현 공안국은 안도현연경향파출소 2 도진파출소와 결탁하여 연경향통양촌 대법제자 1 명과 2 도진 대법제자 4 명의 집을 수색하고 그들을 랍치 해갔다.

■ 왕청현대법제자 리문지(39 세)는 왕청현청교령 림업국 노동자이다. 2007 년 4 월 8 일 오전 10 시경 에 왕청현동광진파출소 악경 4 명이 리문지집에 뛰어들어 컴퓨터, 대법책, 진상 CD 등을 빼앗아 갔다. 이문지는 지금 왕청현간수소에 갇혀 심문당 하고 있다.

연변의 모든 악당, 악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죄를 깨끗히 씻고 청백한 대법제자들을 즉시 석방하라!

한 《610》성원의 전변

흑룡강성에서 살고 있는 한 부녀는 2006 년에 한 친구의 소개로 법륜공을 배우기로 작심했다. 그의 남편은 사악한 당의 거짓선전에 속히워 무작정 반대해 나섰다.

그런데 며칠도 안되어 집주인은 마누라 보고 《법륜공이 정말 좋다면 잘 려마하오. 난 다신 반대하지 않겠소.》 라고 했다. 이 일대전변에 깜짝 놀란 마누라는 남편에게 물어보고서야 그 영문을 알았다.

원래 남편은 《610》성원인 아들을 찾아가서 알아보았다. 아들은 대뜸 아버지보고 말했다. 《우리 어머니더러 배우게 하십시오, 전세계 전 중국이 재빨리 모두 대법을 배우게 될 것 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배우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그제야 성지를 얻은 것처럼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혔고 고집스런 태도도 완전히 전변되었던 것이다.



현재의 거세찬 퇴당물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9 평》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사악한 중공의 본질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퇴당하여 자신을 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리치에 맞다.

현재 중공은 자멸의 시각에 닥쳐왔다. 중공은 오래동안 도덕을 말살하고 자연과 사회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여 누구도 생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 중공은 스스로 자멸을 초래한 것이다. 백성들의 말을 인용하면 《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이다.》

중공은 백성의 피땀을 빨아먹고 백성은 중공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만약 한사람이 퇴당한다면 그의 에너지래원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두사람이 퇴당하면 중공에 대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지만 중국의 천백만 정의인사들이 퇴당한다면 누구도 이 퇴당조류를 막지 못할 것이며 중공의 멸망은 시간문제일뿐이고 퇴당하면 자신을 구할 수 있다.

이 정사(正邪)의 대전쟁에서 우리는 절대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자신의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 선악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이다. 중공이 멸망하는 날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게 되어 중공과 함께 도퇴 된다. 쏘공의 멸망은 눈감짝할 사이가 아닌가? 일찍 퇴당하면 일찍 편안하게 되고 중공의 악몽이 일찍이 깨진다.

필명과 애명으로 퇴당성명을 발표하면 아무런 위험이 없고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진정으로 책임진다면 퇴당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연길시건공, 조양파출소악인방

최송국	건공파출소	소장	13904435380
어명환	건공파출소	지도원	13844335577
류신문	조양파출소	소장	13039183333
차홍길	조양파출소	부소장	13089303515

